

배달·후충전·날씨관측까지... 편의점 플랫폼의 진화

CU 배달 서비스 점포 3000곳
1분기 안에 5000곳까지 확대

GS25 예약·조회 '택배앱' 출시
전동킥보드 충전·주차공간 마련

세븐일레븐 기상관측장비 설치
앱 연동 관측정보 편리하게 확인



부릉라이더가 CU매장에서 요기요를 통해 접수된 주문 상품의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BGF리테일



GS25 편의점 앞에서 모델이 전동킥보드 라임을 타고 있다. /GS리테일



고객이 세븐일레븐에서 '경량패딩조끼'를 구매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과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쇼핑 공간에 지나지 않았던 편의점이 거대 생활 플랫폼으로 거듭 변신하고 있다. 택배·배달, 전기차 충전소, 날씨 관측까지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편세권'(편의점 근처가 살기 좋다)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이다.

◆**배송·택배 서비스 신성장동력으로!**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CU는 현재 배달 서비스 운영점이 3000 곳으로 늘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배달 플랫폼 요기요, 부릉과 제휴해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배달 앱을 통해 오전 11시~밤 11시에 배송 가능한 간편 식품·생활용품 등을 주문하면, 반경 1.5km 이내 씨유 점포에서 물건을 보내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씨유는 올해 1분기 안에 배달 가능 점포를 50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점포에서는 24시간 운영도 준비 중이다.

GS25, 이마트24도 각각 요기요와 제휴를 맺고 편의점 물품 배송 서비스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GS25는 서울 강남권 직영점 10곳에서 350여개 상품을 배달하고 있다.

여기에 GS25는 택배 전용 애플리케이션 'GS택배앱'을 출시했다. GS25는 전국 1만3000여 개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는 데 유용한 앱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택배 예약, 실시간 배송조회, 편의점 위치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택배 예약은 앱에서 배송지 주소 등을 미리 입력하며, 점포에선 택배 무게만 측정하면 된다. 택배를 보내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GS25 측은 "고객이 편의점 택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기능을 연계한 것"이라며 "소매점 기능을 넘어 다양한 생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송이 유통업계의 화두가 되면서 편의점도 배달 서비스에 뛰어들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주차·충전·모빌리티 플랫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활용한 모빌리티 플랫폼도 각광받고 있다. GS25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포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거나 점포 밖 전용 공간

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킥보드 이용을 위해 편의점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이를 도입한 점포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18% 증가했다. CU는 차량공유 업체 '쏘카' 등과 손잡고 공유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대학가나 원룸 인근 점포에 'CU쏘카존'을 도입했으며, 이곳에서 이뤄지는 공유차 대여율은 기존 '쏘카존'보다 20~30% 더 높다.

◆**'오늘 날씨 어때?'**
세븐일레븐은 동네 기상관측소를 자처하고 나섰다. 올해 전국 3000여점포에 초미세먼지 등 다양한 날씨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설치되는 장비는 초미세먼지, 기온, 습도, 강수 유무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가로 10cm, 높이 13cm의 소형장비로 설치하는 것도 간단하다. 기상정보 활용시스템도 개발해 각 점포의 기상관측장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세븐일레븐 모바일 앱인 '세븐앱'과 연동시켜 관측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기상 빅데이터 전문기업 옴저버는 실시간 기상정보 앱을 내년까지 개발해 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된 세븐일레븐 점포를 중심으로 지역별 기상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다시 안전 자산... 금값 '들쭉'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반영하는 한국거래소의 KRX금시장 거래 가격은 지난 3일 1g당 5만7850원으로 전날보다 1.74% 상승했다. 한 돈(3.75g)으로 따지면 지난 12월 20일 20만8388원 수준이었던 가격이 7거래일 만에 21만6938원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올해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다양한 위험요소가 잠재하고 있어 중장기 향방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둘러싼 주요국 간의 경쟁,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무역질서 등이 세계경제의 지형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 진단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을 세계경제 지형변화 주도

韓銀 '글로벌경제 향방 좌우 이슈'를 성장세 완만하게 개선 전망 위험요소에 중장기 낙관 어려워

한국은행은 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5대 글로벌 이슈로 ▲주요국의 4차산업 주도권 경쟁 ▲국제무역질서 재편 ▲글로벌본

업구조(GVC) 내 아세안과 중국의 역할 변화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가속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면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중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부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가간 무역마찰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주독일 중국대사는

중국내 독일산 자동차의 판매량을 언급하며 독일이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중국 정부도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무역장벽이 확대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 국제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해 통상 이슈와 규범을 수립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 RTA는 기존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고 역내 통합수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90년 45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난 2006년 202건에 이어 지난해 302건이 발표 중이다. /김희주 기자 hj89@

중소 R&D 지원예산 1.5조 투입

중기부, 소부장 자립위해 4천억 증액

올해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에 총 1조4885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이는 특히 역대 최대규모로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해 전년보다 4141억원 늘어난 액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5일 발표한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R&D 통합공고'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술혁신 307억원, 창업성장 202억원, 상용화 150억원, 지역특화 400억원 등이다. 또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인 AI(155억원), 빅데이터(65억원), 스마트센서(47억원) 등에 총 267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1186억원의 소·부·장 특별회계도 편성했다. 소·부·장 분야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선 R&D를 우대지원하고,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자립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구매하는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요소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 추천과제도 우대한다.

혁신과 도전을 이끌 18개 R&D 사업에 대한 예산 2807억원도 새로 만들어졌다. 투자방식의 R&D도 처음 도입한다. 이는 민간 벤처캐피탈(VC)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선 민간투자, 후 정부매정 투자방식(1:1)으로 운영된다. /김승호 기자 bada@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2000조 돌파

한은, 지난해 3분기 28.8조 늘어

지난해 3분기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판매신용이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판매신용 잔액은 석달 전보다 28조8000억원 늘어난 총 201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가계대출은 13조6000억원 증가한 148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는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가 빌린 가계대출 231조9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12조8000억원 늘어난 438조7000억원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차주가 빌린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치면 16조3000억원 증가한 670조 원이다. 신용카드 빚을 뜻하는 판매신용은 2조4000억원 늘어난 91조1000억원이다. 전체 가계 신용 증가분에서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분이 절반을 넘는 56.6%를 차지한다. /김희주 기자

